

■ 연구노트 ■

『이주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고찰

박 단

I. 문제제기

2012년 9월 1일 이민인증연구회 가을 정기 학술모임에서 Christiane Harzig and Dirk Hoerder, *What is Migration History?*(Cambridge : Polity Press, 2009)을 회원들과 함께 읽었다. 필자가 발제를 맡은 부분은 1. Introduction: Popular Views –Scholarly Reconceptualizations였다. 여기서 책의 저자들은 이주연구의 한계나 미해결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 때마침, 필자 또한 『프랑스 공화국과 이방인들』(서강대출판부, 2013)이라는 이민사 관련 책의 출간을 눈앞에 두고 최종 교정을 보고 있었기에 『이민사란 무엇인가?』의 저자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들 문제제기 가운데에는 필자의 저서에서 일부 다루어진 항목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항목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필자가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곳에서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프랑스 내 무슬림 이민자들에 관해 주로 연구해 왔다. 때로는 프랑스의 이민자정책을, 때로는 프랑스의 무슬림이민자들의 정착과정을, 그리고 때로는 이민자들과 주류 사회의 갈등을 다루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자가 고민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존 연구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다루어왔다는 점이다. 프랑스에는 다양한 국적 출신의 무슬림 이민자들이 있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터키, 그밖에 중동국가 출신, 심지어는 동남아시아 출신들까지 뒤섞여 있다. 이들은 전통과 문화가 서로 다름에도 무슬림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에 묶여 있다. 또한 이들 이주민 가운데에는 프랑스에 이미 충분히 동화된 무슬림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무슬림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무슬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들을 하나의 무슬림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는 필요하다고 본다. 호스트 사회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출발지 사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민사란 무엇인가?』의 저자들의 문제제기도 이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민한 것은 무슬림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이유로 종교 문화적 원인과 사회 경제적 원인 가운데 무엇을 우선으로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이슬람과 관련된 경우 일반적으로 종교 문화적 갈등을 중요시하는 관점이 있으나, 사회 경제적 요인이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것이다. 조안 스코트의 『베일의 정치학』(The Politics of Veil)¹⁾에서도 강조하듯이 분명 알제리 등 프랑스의 이슬람 식민지 및 이민자들을 연구할 때,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강조됨은 중요하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을 표출할 것이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유럽계 이민자와 무슬림 이민자를 설명하면서 유럽계 이민자가 프랑스 사회에 훨씬 잘 동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치 이들에게는 동화 과정에서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신화’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머문 자의 이야기일 수 있다. 즉 주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자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민사를 연구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유럽에서 떠나라는 극우파의 주장과 논리가 횡횡한다. 이들의 주장에 맞서려면, 이민사를 연구하는 자들이 자기 학문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어떻게 극우파의 논지에 맞설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 장에서 간략하게나마 한 가지씩 풀어나가 보겠다. 필자는 프랑스의 이민자 문제를 전공한 자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문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으며, 필자의 기존 연구 성과

1) Joan W. Scott, *The Politics of the Veil*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를 사례로 인용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지적하고자 한다.

II. 무슬림의 다양성

필자의 경우, 지금까지 프랑스의 무슬림 이주민과 관련된 글을 써오면서, 특별히 이들을 구분하지 않았다. 아마 특별한 문제의식도 없었고, 어찌 보면, 프랑스공화국의 ‘단일한 프랑스’라는 입장을 무의식적으로 추종해 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것도 아니면, 프랑스 무슬림이민자 2세대와 관련된 ‘히잡 사건’이나 이민자 정책들을 살펴볼 때, 그 자체에 몰두하여 무슬림들을 세분하여 볼 여력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우선 ‘히잡 사건’만을 보더라도, 교내 히잡 착용과 관련하여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의 마그레브 지역 이주민과 터키, 이란 혹은 중동국가 출신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을까? 아니면, 마그레브 지역 내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나타났을까? 프랑스 내에 존재하는 이슬람 단체별로는 입장이 어떠했을까? 출발지가 상이하면, 분명 정착사회에서의 태도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일반론이 어느 정도 타당할까? 이러한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공화주의 전통에 관한 무슬림이민자의 입장을 다각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무슬림이민자들을 우선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프랑스의 무슬림’(les musulmans français)과 ‘프랑스 내의 무슬림’(les musulmans en France)이 그것이다. 전자는 이미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어 프랑스인들과 어울려 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사적영역에서만 신봉하는 세속화된 사람들이며, 후자는 프랑스 사회 내에서 여전히 자신이 무슬림임을 공적영역에서조차 드러냄으로써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급진적 이슬람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²⁾ 프랑스에 거주하

2) 이는 마치 French Jews와 Jews of France(français israélites)로 구분하는 조안 스콧의 유대인 구분과 흡사하다. 전자는 아직 프랑스 사회에 완전히 동화하지 않은 유대인을, 후자는 프랑스 보편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유대인을 말한다. Joan W. Scott, 75-76.

는 무슬림들을 이와 같이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은 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무슬림이민자들을 일괄적으로 프랑스 공화주의 전통을 무시하는 자들로 매도해서는 프랑스 무슬림들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국내외의 상당수 연구들이 무슬림들의 프랑스 사회 내 ‘부적응’, 혹은 그로 인한 문화적 갈등을 주로 강조해 온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프랑스 내 문화갈등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히잡 사건’이 경우 얼핏 프랑스 내 모든 무슬림 여학생이 다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연관된 학생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2004년 3월 15일의 법안’(일명 ‘히잡 금지 법’) 이후 히잡 쓰기를 고집하여 퇴학당한 학생의 수는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극히 소수일 뿐이다.³⁾ 또한 프랑스 내에 부르카를 쓰고 다니는 사람의 숫자는 총 2천 명을 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다. 201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르카 금지법을 어겨 기소된 자는 2011년 9월 22일 북동부의 모(Meaux) 지방에서 처음으로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⁴⁾ 이는 바꾸어 말하면, 대다수 프랑스 무슬림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의 무슬림’으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정기적으로 모스크에 가는 프랑스 내 무슬림의 비율이 적게는 5%, 많아도 10%를 넘지 않는다는 조사⁵⁾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겠다. 즉, 프랑스 내 무슬림들의 종교적 실천행위는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급진 이슬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민자의 수는 더욱 적다고 하겠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만일 무슬림이민자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민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 3) 2000년 초 학교에서 히잡을 착용하였던 여학생 수는 1,254명이었고, 그 수는 25여 만 명 정도의 무슬림 여학생 중의 극소수라 할 수 있다. 홍태영, 『정체성의 정치학』(2011, 서강대출판부), 163에서 재인용.
- 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280933> (검색일자: 2011.9.26)
- 5) Catherine Wihtol de Wenden, “Seconde génération: le cas français,” Rémy Leveau et Khadija Mohsen-Finan (ed.), *Musulmans de France et d'Europe*(Paris, 2005), 17.

의미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가능하다면, 좀 더 세분화된 무슬림을 대상으로 이민사를 살펴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구분이 오히려 인종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 논리 또한 프랑스가 인구센서스에서 인종, 종교에 대한 항목을 두지 않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계속 논쟁 중에 있는 ‘종족통계(statistiques ethniques)’ 논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게 할 것이다.

III. 이민자 통합에 대한 종교 문화적 원인과 사회 경제적 원인

필자가 그 간의 연구에서 강조했던 것은 프랑스 주류사회와 무슬림이민자 혹은 그 2세대 사이의 ‘문화전쟁’이 사회통합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무슬림이민자들이 그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 때문에 프랑스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없었고, 또 진정 공화국시민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 즉 그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종교 문화적 측면이라기보다 오히려 사회 경제적 측면과 더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그 두 원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월등한 요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단지 필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종교 혹은 문화가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절대 요소는 아니라는 점이다.

조안 스코트는 앞서 언급한 자신의 책에서 프랑스 사회통합에서 ‘문화’가 매우 중요함을 언급한다. 프랑스 사회 내 이민자들의 높은 실업률을 언급한 후, “문제는 사회경제적 조건보다 오히려 다루기 힘든 문화적 차이에 있다.”고 말한다.⁶⁾ “여기서 오래된 문명화사명의 역설이 다시 등장한다. ... ‘문화’는 이들 북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 사회로 통합되는 것을 막는다.” 스코트는 “북아프리카인들이 이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프랑스인들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서 소개한다. 이러한 주장에서 우리는 이슬람과 북아프리카인들의 문화가 혼용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요소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프랑스인들은 무슬림의 사회통합 정도를 종교보다도 그들의 전통과 문화에서 찾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6) Joan Scott, 80.

마그레브 이민자문제에 있어 종교의 세속화와는 별개로 무슬림의 전통과 문화 또한 프랑스인의 기준에 충족되는 것이 사회통합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보기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슬림이민자 2세대 혹은 3세대 등은 결혼 및 가족형태, 출산율 등의 문제에 있어 프랑스인과의 혼합결혼 등을 통해 점차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고 있다. 단지 사회 경제적 상황이 이들의 완전한 통합을 방해하고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무슬림이민자들에 의해 계도화되고 있는 일부 방리유들은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화 되고 있다. 이들의 높은 실업률과 치안 문제 등은 극우정파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의 선거에 있어 단골 이슈이다. 특히 극우정파가 부각시키고 있는 이들의 높은 범죄율, 복지혜택 문제 등은 프랑스 사회 내에서 자연스레 이슬람혐오주의를 양산하게 되고, 이는 프랑스의 미디어와 정치에 의해 더욱 널리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중동문제와 연계되어 간혹 일어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행위는 무슬림이민자 2세대를 프랑스 사회 내에서 더욱 타자화시킨다. 무슬림들의 종교적 세속화 여부와는 별개로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 무슬림이민자들의 종교와 문화에 접속되면서 ‘무슬림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극우파의 주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랑스에서 무슬림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문제는 단지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무슬림이민자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 그리고 국제정치적 문제와 매우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들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열악한 사회 경제적 상황이 이들만의 책임인가를 묻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 경제적 어려움이 이들만의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 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문제의 해결책은 현재의 이민자 통합정책, 공화국원칙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일부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유럽계 이민자의 사회통합

우리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유럽계이민자들은 무슬림이민자에 비해 프랑스

사회에 비교적 잘 동화되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신화’는 이들 유럽계 이민자들의 프랑스 사회로의 동화과정을 너무 순탄한 과정으로 믿게 만든 것은 아닌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유럽계이민자들이 양차 세계대전과 1930년대 경제공황을 겪으며 프랑스를 떠났다는 사실을 대체로 간과하고 있다.

폴란드 노동자의 예를 들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인지를 잘 알면서도 1930년대 경제공황하에서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프랑스 체류 동안 이들 이민노동자들은 프랑스노동자들보다 몇 배의 고통을 겪었으며, 흔히 실업에 처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이탈리아, 벨기에 등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민자들 또한, 전쟁 후 그들 국가의 여건이 나아지자마자 귀국행렬에 동참하였으며, 더 나은 조건을 따라 타국으로 떠났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19세기 이래 프랑스로 온 유럽계이주민 상당수는 현재 프랑스에 남아있지 않다. 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제3공화국의 외국인민자 정책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이미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남은 자뿐 아니라 떠난 자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즉, 떠난 자들은 출신지로의 귀향을 통해 프랑스 시민으로 동화되기 어려웠음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프랑스로 온 수많은 이방인들 중 일부만이 프랑스인으로 살아남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잔류한 사람들은 프랑스 사회로 완전히 동화되기 위하여 자신들의 출신 국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사적으로 자신들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모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 전통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회로의 완전한 동화는 과연 실현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럽계 이민자들이 ‘프랑스적 용광로’에 녹아들었다고 평가받고 있고 무슬림들과 달리 사회적 차별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가시적인 현상은 이들이 프랑스 사회에 정착한 지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다는 점과 프랑스와 같은 종교를 공유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출신국과 프랑스가 커다란 정치적 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은 이들의 외모와 이름이다. 이들은 “아이사타, 파투, 하시드, 무하메드”라는 이름⁷⁾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에 그나마 고용이나 거주 등에서 주류 프랑스인으로부터 가시적인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들 또한 이민자로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화’는 신화일 뿐이다.

V. 유럽 내 무슬림이민자문제의 해결 방안

그러면, 우리는 주류사회와 이민자사회 사이의 갈등-그것이 문화적 갈등이든 사회경제적 갈등이든 간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그 갈등이 이슬람사회와 서구사회 사이의 갈등일 경우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어쩌면 이 문제는 단순한 이민자 문제 혹은 종교 문화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미래 인류 전체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사무엘 헌팅턴이 지적한 대로, 20세기 말 냉전 이데올로기가 종식된 이후 문명 간의 충돌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2001년 9.11 사태가 상징하듯, 그 가운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서구문명과 이슬람문명 사이의 충돌이다. 서구문명과 이슬람문명 간의 갈등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전개되었던 구 유고연방의 인종청소, 걸프전쟁,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내전 등 그 사례를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단지 국제전 양상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으로 무슬림 이민자들이 쇄도함으로써 유럽 내에서는 소위 ‘문화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문화전쟁은 서구기독교적 가치와 이슬람의 가치의 충돌로 해석될 수

7) 영화 『클래스』에서 일부 학생들이 Bill이라는 백인을 상징하는 이름 대신 사용할 것을 주장한 이름들이다. Cf. 박단, 「영화 『클래스』를 통해 본 폴라스 학교와 이민자 2세」, 『프랑스사 연구』, 22호(2010.2)

있지만, 그것은 단지 종교적 갈등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의, 식, 주에 관련된 모든 것과, 행위와 정서와 사고의 양식들”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면, 이 전쟁은 종교, 민족, 인종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의 가치체계, 가족시스템, 사고방식을 포함하는 그야말로 문화전쟁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갈등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1989년은 프랑스 혁명 200주년이 성대하게 치러지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로,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이슬람과 서구문명 간의 ‘문화전쟁’이 일어났다. 공립학교 내 무슬림 여중생들의 히잡 착용 문제를 두고 벌어진 논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전후를 통해 이와 유사한 ‘전쟁’은 줄을 이었다. 네덜란드 영화 감독인 테오 반고호가 이슬람 여성을 폄하하는 <굴종(submission)>이라는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피살된 사건, 2005년 런던 7.7 테러 사건, 2006년 덴마크 일간지의 마호메트 모욕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겉으로는 현재의 유럽 내 무슬림 이민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종결지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연원은 뿌리가 매우 깊어 쉽게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그 연원은 단지 19세기 식민지배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북아프리카 마그레브인들과 중동지방에 대한 서구의 식민지배는 서구 유럽국가와 이슬람 간의 상호반목을 심화시킨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이는 탈식민지 이후에도 여전히 두 문명 사이의 발목을 잡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732년 푸아티에 전투, 중세 십자군, 중세 말의 레콩키스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구와 이슬람 간의 대립은 생각보다 그 뿌리가 매우 깊다. 그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는 쉽게 이해될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문화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상호공존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서로 다른 두 문화 간의 유사성이 실제로는 문화적 차이만큼이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신인종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문화적 차이’라는 개념보다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그들’과 ‘우리’ 모두가 사실상 내적으로 상당히 분화되어 있으며, 그 경계가 유동적이고 흐릿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 만일 문화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받아들여진다면, 두 공동체가 상호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이민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고찰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서구사회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역사 속에 나타난 두 문명 간의 갈등이 식민 지배를 통해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다. 사실, 두 문명 간에는 반드시 갈등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르네상스 시기 아랍세계의 고전그리스철학과 과학의 전래가 없었다면 오늘날 서구문명은 그 모습이 달라졌을 것이다. 상호 간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두 문명이 상호 협력했던 시기를 집중 부각시키고, 이를 교육을 통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슬람세계의 인식변화이다. 과거 서구사회의 식민지배와 핍박에 대한 피해의식을 떠나 상호공존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유럽 내에 거주하는 무슬림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서구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전쟁을 종식시키고 상호공존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문명 간의 무지와 편견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서강대학교 사학과, dahn@sogang.ac.kr